

경북지방 동성마을의 주거배치 및 평면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 Research on the Residence Disposition and Feature of Ground Plan a Clan village in Kyuon-guk Area

김영만* · 곽동엽**

Kim, Young-man · Kwak, Dong-yeob

Abstract

This reserch is to compare and analyze of the residence disposition and feature of ground plan on Seomi 2 Dong in An-dong and Hyun-ri in Mun-gyong. The scope of this reserch concentrated on 33-housed which are 12-housed in Seomi 2 Dong and 21-housed in Hyun-ri. The focus of this reserch is mainly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 of the site, and ground plans on individual houses. As result of it, there are mostly Yeo-Kan houses (six spans sized) on Seomi 2-dong village in An-Dong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 lot of Straight-Houses in Hyun-ri in Mun-gyong. Otherwise in characteristic of residence, There is dissimilarity between Seomi 2-dong which located in mountainous districts has space organization of utilitarian and Hyun-Ri has justification primacy as a farm village.

키워드 : 여칸집, 일자형집, 동성마을, 산촌, 농촌

Keywords : Yeo-Kan Houses, Straight Houses, Clan village, Mountain village, Farm villag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주거사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표중 하나가 전통주거의 특성을 시간적·지역적으로 분류·분석하는데 있음을 생각해 볼 때 주택의 지역성 연구는 당위성을 갖는다.

한 지역의 전통 민가는 지역의 자연적인 조건 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특정 지역의 고유한 주거특성은 다른 건축물에 비해 강한 전승력을 가지며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출되어 진다.

이는 결국 향촌의 기본적인 사회생활로서, 마을이라는 틀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마을은 주택

의 지역성을 대표하는 단위이기도 하다.

특히 마을 구성원이 혈족으로 이루어진 同姓 마을일 경우 민가의 지역성은 보다 뚜렷해지며 이는 혈연적 동질성이 작용하여 주거의 특징으로 고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주거사 연구는 마을단위의 전반적인 조사가 시행되어 축적되어야 하며 특히, 지금도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마을현상들에 대해 현장답사를 통한 조사·채집·분석의 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일환으로, 경북지방 두 곳의 마을을 대상으로, 전면적 주거조사를 실시하여 비교·분석을 통한 주거특성을 도출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의 지리적 환경과 주거의 유형적 특성과의 사이에 관련성이 있음을 밝혀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 정회원,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 대전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이러한 마을단위의 연구가 거듭되고 자료가 축적될수록 주거의 지역적 계통화가 더욱 명확해 질 수 있으며, 현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연구의 결과물은 주거사 연구의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1.2. 연구의 대상 및 내용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마을은 안동군 서미 2동과 문경시 현리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우선 동성마을이란 공통점과 함께 마을의 크기가 비슷하고 마을과 집들의 나이도 대개 비슷하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자영농 계층의 집들이며 점차 퇴락해 가는 과정에 있다는 점이 같다. 반면 서미 2동은 山村이고 현리는 農村인 점이 크게 다르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두 마을을 비교·분석하여 그에 따른 주거 특징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재 서미 2동에는 총 37호가 거주하고 있으나 그 중 전통 목조가구식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는 12戶이고, 현리는 총 48戶 중 21戶가 예전의 법식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서미 2동의 주택 12戶 현리의 주택 21戶, 총 33戶를 연구의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표 1. 연구 대상 건축물

대상마을	조사 대상 가옥명	합계
안동군 서미 2동	종택, 황중기, 황후규, 황운기, 황정숙, 황병창, 황오규, 황병시, 권호순, 권영해, 정순영, 임차노미	12戶
문경시 현리	종택, 채희호, 채철재, 채춘식, 채충기, 채원규, 채희술, 채영식, 채사인, 채훈, 채희진, 채상식, 채홍섭, 채의길, 채의균, 채경식, 채희창, 채중식, 채의묵, 채희관, 채운자	21戶

연구는, 마을내 가옥들의 개별배치와 주거평면을 면밀하게 실측조사 하였고 더불어 주민들과의 면담과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 자료를 채집·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조나 증축·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원형대로 복원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채집된 자료는 각각의 주거배치와 주택의 평면 및 구조방식 등으로 분류하여 유형

화하였다.

2. 마을의 연혁 및 현황

서미동은 행정구역상 안동군 풍산읍에 속한다. 본래 간테마(中間마), 대목재(大木峴), 서미(西微), 서원물(書院村) 등 4개의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졌는데, 연구대상이 되는 서미 2동은 대목재 혹은 목현으로 불리우는 마을이다.

이곳은 평해 황씨 집성촌으로서 황씨들이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약 350여 년 전이다. 전해 오는 바로는 안동 하회 마을 건너편 풍천면 인금리에 살던 황흥세(黃興世: 1585~1646)의 처(삼척 김씨)가 남편을 여윈 후 임진왜란으로 피폐해진 어려운 생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어린 자식인 황하응(黃河應: 1638~1670)을 데리고 이곳에 찾아들었다 한다.

1913년 작성된 토지조사부¹⁾에 의하면 서미 2동은 당시 약 33戶의 주택들이 자리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974년에는 마을의 가구가 73戶로 증가하였고 이후 1975년을 고비로 주민들이 차츰 마을을 떠나는 추세가 이어져, 현재는 37戶만이 거주하고 있을 뿐이다.

예천군 보문면과 경계를 접한 이 마을은 해발 643m의 현공산을 배경으로 삼고 그 남쪽 기슭의 완만한 경사지에 자리한 마을이다. 경사지인 까닭에 집들은 산록을 타고 계단식으로 건축되었다.

한편 현리는 행정구역상 문경시 산양면에 속하며, 인천 채씨들이 모여 사는 동성마을이다.

기록에 의하면 순천 박씨인 박효창이란 선비가 약 550년 전에 이곳에 터를 잡았다 한다. 그 후 약 200년간 번창한 순천 박씨들은 인천 채씨들이 세력을 펼치자 점차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한다. 인천 채씨의 최초 開基祖는 채유부라 할 수 있는데, 채유부는 처가인 순천 박씨의 상속을 받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몇 해전에 아들과 함께 이곳으로 들어와 살았다 한다. 한때는 100여戶가 마을을 이루었으나 차츰 도시로 이주하고 현재는 4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1) 토지조사부는 일제가 식민지 체제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를 조사하여 1913년에 작성한 문서이다.

현리는 산양면의 가장 북쪽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뒤로는 산북면과 경계를 짓는 근암산과 비조산이 병풍을 두른 듯 솟아 있는 산록에 남향으로 앉았다. 남쪽과 북쪽으로는 비교적 넓은 들이 펼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서쪽으로 낙동강 지류인 錦川이 흐르고 있어 생활의 터전으로 삼기엔 안성마춤인 곳이다.

3. 주거의 배치 특성

조사된 각 주택들의 좌향과 출입구의 위치, 대지안에서의 배치 특성과 관련지어 분석함으로써 구성원의 내·외부생활에 따른 공간활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3.1. 서미 2동의 주거 배치특성

서미 2동의 주거들은 대개 2채 이상의 건물들로 구성된 別棟形 주택이 다수를 차지한다. 조사된 12곳 중 사랑채를 따로 갖춘 종택과 아래채를 둔 6곳의 주택 등 모두 7곳이 別棟形 주택이다.²⁾

뿐만 아니라 아래채를 따로 가지고 있는 이들 주택³⁾들은 거의 본채와 직교되게 배치되는 양상이 두드러지는데, 특히 아래채가 본채 좌측으로 위치한 ‘역ㄱ자형’의 배치를 한 예가 4곳으로 오른쪽으로 직교한 경우⁴⁾보다 높은 비율을 보인다. 이는 아래채의 채광조건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 남향인 본체의 좌로 직교하게 하여 아래채를 동향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⁵⁾

한편 아래채 위치와 본체의 室 구성 사이에도 관련성이 보이는데, 6곳의 주택 중 황오규씨

집⁶⁾을 제외한 5사례에서 본채의 공간 중 정지가 위치한 방향에 아래채가 자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채 정지와 아래채를 연관지어 인접하게 배치한 것은 둘 사이에 자연스럽게 사잇공간(옆마당)을 형성시키고, 이를 정지와 연결되는 작업마당으로 활용하고자 한 의도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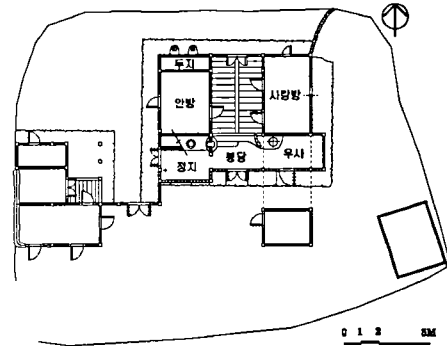


그림 1. 임차노미씨 집 배치·평면도

3.2. 현리의 주거 배치특성

조사된 민가들은 一자형 집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총 21戶중 6곳⁷⁾을 제외한 15戶는 아래채나 대문간채가 없이 본채만으로 구성⁸⁾된 특징을 보인다. 이들은 대개 서미 2동에 비해 대지가 매우 넓은 특징이 있는데, 땅을 놀리지 않고 정면과 측면의 마당에는 거의 모두 농작물을 심어 경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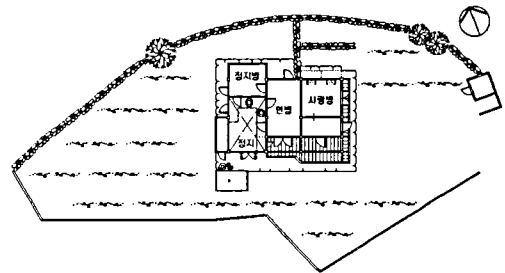


그림 2. 채사인씨 집 배치·평면도

- 2) 나머지 5곳의 주택도 과거 아래채를 갖추고 있었음을 마을 주민들을 통해 알 수 있었으나 확인할 자료가 없어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3) 아래채의 향이 본채와 병렬 배치되는 황병시씨 집과 안채+사랑채로 구성된 종택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 4) 사례로서 권호순씨 집은 대지로의 출입구가 서쪽에 있는 이유로, 넓은 우측에 아래채를 두고 본채와의 사이에 간벽을 쌓아 작업마당을 따로 두었다.
- 5) 광동엽(2003), “안동 서미 2동의 마을구조 및 민가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4권 1호, p.71

- 6) 황오규씨 집은 대지특성상 아래채가 정지쪽에 위치하면 북향이 되어 거주하기에 불편했으리라 짐작된다.
- 7) 사랑채를 따로 갖춘 4곳과 ‘ㄱ자형’ 배치를 한 종택 그리고 병렬식으로 구성된 채희호씨 집
- 8) 간략한 헛간채가 있는 것은 본채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넓은 앞마당에 비해 좁게 형성된 뒷마당은 특이하게도 담을 쌓아 영역을 구분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이유는 儒敎的 이념에 근거하여 内外영역을 구분하고자 한 까닭으로 보인다.⁹⁾ 이러한 현상은 조사된 가옥의 절반이상인 11곳에서 발견된다.

한편 현리의 주택들은 「정지-안방-속방과 안대청-사랑방-뒷마루」의 평면배열을 보이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채희진씨 집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사랑방과 뒷마루가 정지 옆쪽으로 배열된 평면 구조를 보인다. 이런 현상은 집의 출입구인 대문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대지로의 접근로가 유일하게 서쪽으로 나 있어 대문쪽으로 사랑방이 위치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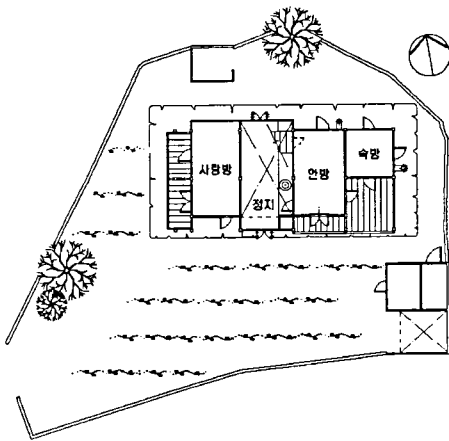


그림 3. 채희진씨 집 배치·평면도

4. 주거의 평면적 특성

4.1. 서리 2동 주거의 평면적 특성

서리 2동의 주택들은 대부분 안동 북부내륙지방과 강원도 남부지방에서 흔히 발견되는 여칸집(일명 까치구멍집) 평면구성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¹⁰⁾ 따라서 대개 정면 3칸, 측면 2칸의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앞 열에는 정지와 봉당 그리고, 외양간이 각 1칸 크기로

9) 부엌의 뒤안과 사랑방의 뒤쪽 마당을 구분하여, 넘나들지 못하도록 하였다.

10) 안채가 개축된 권호순씨 집은 一자형 겹집 구성을 보인다.

배치되고 그 뒷 열엔 가운데 마루를 중심으로 양쪽에 온돌방이 나란히 배열된 겹집의 구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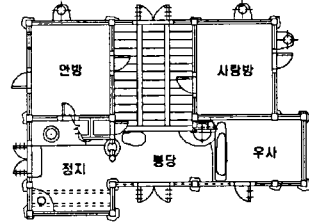


그림 4. 전형적인 여칸집 평면(황후규씨 집)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일부가 생략되거나 확대되기도 한 변형된 여칸집의 사례들이 보이기도 하며 정면이 4칸으로 구성된 一자형 집도 다소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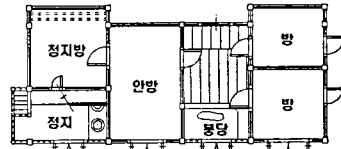


그림 5. 황중기씨 집 평면

황중기씨 집의 경우, 얼핏 보기에는 一자집이지만 정면 4칸 중 1칸을 제외한 나머지 3칸이 겹집 혹은 반겹집화 되어 있으며, 마루 앞으로는 출입문이 설치된 봉당을 두는 등 일반적인 一자집에서는 보기 힘든 평면구성을 하였다. 즉 건물의 구조법에서 여칸집 법식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집은 일반적인 여칸집 평면에서 외양간이 탈락되고 정지와 마루 사이에 통칸의 온돌방이 부가되면서 변형된 평면형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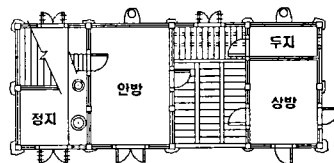


그림 6. 종택 평면

11) 종택, 황중기씨 집 등 4戶

종택도 이와 마찬가지로 변형된 여칸집 계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황중기씨 집에 비해 더욱 주택의 환경이 개선된 방향으로 변형되었다.¹²⁾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서미 2동의 민가는 一자집을 비롯하여 여칸집의 평면 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통되는 또 하나의 평면적 특징은 본채 내부에 두지가 다수 보인다는 점이다. 수장기능의 두지는 대개 아래채나 고방채에 위치하는 것이 상례이나 이 마을에서는 이러한 통상적인 예를 벗어난 주택들이 과반수를 넘는다. 또 하나의 변형은 본채에서의 우사의 생략이다. 그런데 우사의 생략과 두지의 附加가 서로 밀접한 상관 관계를 보여 흥미롭다. 즉 서미 2동의 주민들은, 이들 두 공간 중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갖추고 있으며 비율로 볼 때 두지만을 갖춘 집이 배 가까이 된다.

이는 생활 환경을 개선시키고 수장공간을 가까이 두어 편리함을 추구하려는 합리적인 사고가 반영되면서 일어나는 변형의 결과로 여겨진다.

한편 최초 전형적인 여칸집 평면에서 건축된 주택들 중에도 현대식 생활방식을 수용하면서 평면의 개조가 진행된 몇 몇의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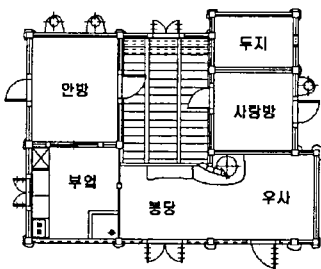


그림 7. 권영해씨 집 평면

그 중 권영해씨 집은 내부 공간의 배열은 그대로 둔 채 정지와 설비만을 개조한 사례이다.

12) 출입문이 설치된 봉당이 없어짐으로 인해 마루가 직접 외기에 접하게 되었고 정지 킷방이 없어져 정지의 환기 조건이 더욱 좋아지게 된 것이다.

가장 최소의 노력을 들여 가장 필요한 부분만을 개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집의 구조와 기본 골격은 유지한 채 공간상의 일부 변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며, 이는 여칸집의 평면적 특수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여칸집의 평면 구성은 다른 민가들에 비해 현대주택의 평면과 유사하여¹³⁾ 현대식 생활을 수용한 경우 일부분만을 개조해도 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4.2. 현리 주거의 평면적 특성

연구 대상 주택인 21곳의 가옥을 분석한 결과, 현리의 주택들은 대부분 一자형이며 반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뿐만아니라, 반겹집화된 평면배열을 교묘하게 처리하여 儒敎的 전통에 의한 남녀공간의 분리를 주택구조에 적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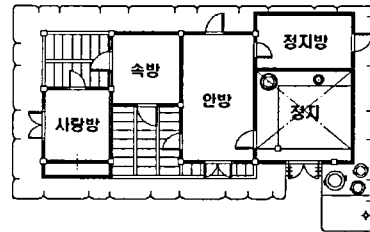


그림 8. 채충기씨 집 평면

채충기씨 집은 크기에 비해 각 공간들의 배열이 일부 겹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평면과 동선을 이루는데, 공간배치 중 가장 의의적인 것은 집의 좌측칸 구성이다. 사랑방이 남향이면서도 출구는 없고 벽으로 가로막혀 있다. 이는 방과 마루를 적절히 배열하여 내부를 두개의 공간으로 분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럴 경우, 하나의 건물안에 남성의 영역인 사랑채 공간과 여성의 영역인 안채 공간이 적절히 분리되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속방은 안방과 사랑방의 사이에 위치하여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 둘을 이어주는 과정적 공간이 된다.

13) 평면의 구성상, 특히 봉당과 이에 연결한 마루는 현대식 주택의 현관과 거실의 모습을 닮아 있고 실지로 이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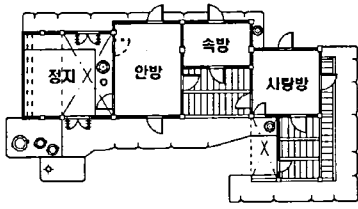


그림 9. 채원규씨 집 평면

채원규씨 집 역시 'ㄱ자' 배치를 통해 내외공간이 구별되고, 수납공간이 측면마루를 가로막아 시선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숙방은 안방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직접 출구를 두지 않고 마루를 통해 출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숙방의 주거적 성격을 반영한 결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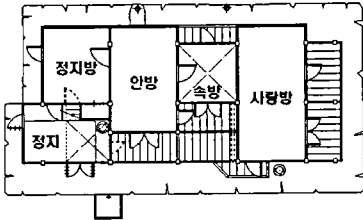


그림 10. 채희술씨 집 평면

채희술씨 집의 숙방은 안방과 외여닫이 문을 공유하고 있어, 안방에 부속되는 동시에 앞마루와 뒷마당을 연결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숙방은 안방과 사랑방의 중간적 성격과 독립된 주거성격 또는 안방의 부속공간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한다.

또한 세 곳에 출입구가 있는 정지방은, 안방과 정지 사이에 위치하여 정지 부속공간(찬방)과 안방 부속공간(작은방)의 역할을 합과 동시에 안방과 정지를 잇는 동선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된 거주공간으로도 쓰여진다.¹⁴⁾

한편 반겹집화로 인해 정지는 환기와 채광상의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이 집의 주인은 공간을 좌측으로 늘리고 상부다락을 반만 걸쳐 환기를 원활히 하고, 정면 출구위에 살창을 두어 채광도 함께 해결하였다.

14) 주민들에 의하면, 겨울철에는 땀나무를 저장하는 창고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채상식씨 집은 채희진씨 집과 같은 변형의 한 형식으로 생각되는데, 사랑방의 위치가 바뀐 채희진씨 집과는 달리 이 집은 정지방의 위치가 달라졌다. 이렇게 됨으로써 정지방은 환기와 채광면에서 훨씬 유리해져, 살림살이 혹은 음식물의 보관이나 室간의 동선 역할에서 벗어나 거주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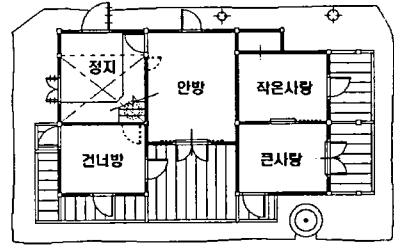


그림 11. 채상식씨 집 평면

한편 측면마루가 유독 발달¹⁵⁾한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툇마루의 역할을 넘어선 기능을 한다. 즉 안대청과 대비되어 사랑대청의 기능을 담당하여 오히려 안대청보다 더 크게 발달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랑방을 미서기문으로 구획¹⁶⁾하여 세월의 흐름에 따른 가족수의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갖추었다.

4. 결론

이상 서미 2동과 현리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의 배치·평면적 특성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두 마을의 배치와 평면상 특징은 아래와 같다.

4.1. 주거의 배치특성

먼저 서미 2동의 민가는 대개 別棟形 주거로서 2채이상의 건물이 'ㄱ자형'으로 배치되는 경향이 많다. 특히 본체의 정지가 위치한 쪽에 아

15) 이러한 현상은, 사랑채를 따로 갖춘 종택,채희호, 채철재씨 집과 숙방없이 안대청을 넓게 가진 채중식,채희균,채의길씨 집을 비롯한 15곳에서 보여진다.

16) 채사인, 채희진씨 집 등 6곳에서 이러한 분리현상이 보인다.

래채를 배치한 다음 이 사이에 담장을 쌓고 앞마당과는 구분되는 폐쇄적인 작업 마당을 두는 예가 많다. 따라서 이 마을 대부분의 민가들은 개방적인 앞마당과는 달리 외부에 대해 폐쇄성이 강한 별개의 마당을 구획하려는 추세가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¹⁷⁾

현리는 본채만으로 구성된 一자집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본채 주위의 넓은 대지를 활용하여 대부분 뒷밭을 일구고 있는데, 이는 농촌주택의 한 특징으로 보여진다. 또한 儒敎的 이념에 근거한 内外문화가 가옥배치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즉 좁은 뒷마당은 내외담으로 구획한 예가 많고,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사랑방을 위치시킴으로서 대문과 사랑방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주거의 평면특성

서미 2동의 주택은 대부분 안동 북부내륙에서 흔히 보이는 여칸집 평면구성을 하여 겹집 혹은 반겹집의 구조를 보인다. 반면 생활환경의 개선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선택적으로 외양간은 생략되거나, 두지 등 수장공간이 본체에 추가되는 변형된 여칸집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현대식 생활방식을 수용하여 여칸집 구조는 그대로 둔채, 봉당을 없애고 마루를 직접 외기에 면하게 하면서 정지자리를 입식부엌이 차지하는 등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리는 평면적으로 一자집이 대부분이며 반겹집화 현상을 보인다. 특히 이 마을에서 본채를 구획하여 평면형태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儒敎的 논리에 근거한 内外공간의 분리현상이다. 대부분 주택들이 본채만으로 구성된 까닭에 남녀의 공간을 구분하면서도 효과적인 공간활용이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이 바로 속방이다. 즉 현리의 주택들에서 보여지는 「정지와 정지방-안방-속방과 마루-사랑방」의 평면배열을 고려해 볼 때, 속방은 안채영역과 사랑채영역을 구분짓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 이로써 수납(안방의 부속공간)과 동선(안침의 역할) 그리고 독립된 거주공간(혹은 창고)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주택을 有機的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그러므로, 속방은 한 지붕 아래 두 채의 살림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인 것이다.

정지방 또한 수납(정지와 안방의 부속공간)과 동선(정지와 안방간)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 독립된 거주공간(혹은 창고)으로서의 기능도 훌륭히 소화하고 있다. 또한 연결한 정지와 위치를 바꾸기도 하면서, 주거로서의 기능이 강화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한편 반겹집화 현상으로 인해 발생한 정지방과 속방 등의 다양한 공간들로 인해, 안방의 기능이 강화되고 안대침의 기능은 그 만큼 미약해졌다. 반면 안방과 등을 맞대고 사랑방만을 점유한 남성들의 공간은 대문쪽으로 확대되면서 측면마루가 사랑마루 역할을 담당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현리의 주택들은, 본채 내에서 마루와 온돌방의 위치를 조정하고 출입문을 생략하기도 하는 한편 내외벽을 적절히 사용하여 집의 기능적 유연성을 높였다. 또한 생활의 변화에 따라 공간을 재조정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기능적인 온돌방과 평면배열을 선택한 이유는, 内外문화가 엄존하는 마을 특성에 기인한다. 한 지붕아래 안채와 사랑채를 한꺼번에 수용하는 동시에 그것을 공간적으로 다시 재배열하여 효과적인 평면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서, 두 마을은 同姓마을이란 점과 자영농 계층의 민가구성을 보인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서미 2동은 山村인 까닭에 지리적으로 해가 빨리 지고 추운날이 많아 작업마당과 수장공간을 집안으로 들이고 내부지향적인 주거를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 현리는 마을 앞 넓은 농경지가 생업의 터전이었고 넉넉한 여유공지를 뒷밭으로 활용하면서도 유교적 内外문화가 주거에 반영되어, 집짓는데 만큼은 實利와 名分을 동시에 수용하고자 한 의도에 기인하여 주거의 특징이 결정된 것이라 판단된다.

17) 곽동엽, 전제논문 p.71

참고문헌

1. 김일진(1996), 옛집에 담긴 생각, (주)청구.
2. 강영환(2002), 한국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3. 국립민속박물관(1998), 경북내륙 지방의 가옥과 생활국립민속박물관 학술총서 26.
4. 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2002), 까치구멍 집 많고 도둑 없는 목현 마을, 한국학술정보(주)
5. 안동대학교 민속학 연구소(2003), 반속과 민속이 함께 가는 현리 마을, 한국학술정보(주).
6. 광동엽(2003.2), 안동 서미 2동의 마을 구조 및 민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4권제1호
7. 광동엽(2002.4), 포천군 근대 농가의 건축적 변화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3권제2호.
8. 정명섭(1997.10), 남평문씨 본리 세거지 마을과 주거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8권제3호.
9. 이호열(1997.12), 경북지방 근대 한옥의 유형과 성격, 건축역사연구 13.
10. 한지만, 이상해(2001.9), 경기지역 민가의 배치 형식과 외부공간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7권 9호.